

## 研究論文

『한중록』과 『붉은 왕세자빈』에 나타난 문화횡단성 연구\*  
- 사도세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 심층심리학적 고찰 -

손 태 수\*\*

- |                                 |                         |
|---------------------------------|-------------------------|
| I. 서론                           | V. 『한중록』과 『붉은 왕세자빈』의 원형 |
| II. 『한중록』의 영역(英譯)과 소설 『붉은 왕세자빈』 | 분석적 접근                  |
| III. 『한중록』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 VI. 결론                  |
| IV. 『붉은 왕세자빈』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 <참고문헌>                  |
|                                 | <국문요약>                  |

## I. 서론

영국 작가 마거릿 드래블(Margaret Drabble)<sup>1)</sup>이 쓴 장편소설 『붉은 왕세자빈(The Red Queen)』(2004)은 18세기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비극을 다룬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한국과 영국,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있다. 한국의 고전문학, 특히 궁중문학과 여성문학의 백미로 평가되는 『한중록』은 정신이상으로 폭행과 살인을 일삼다가 결국 부친 영조의 명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남편의 모습을 기록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2007년도 BK 21 횡단영어영문학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번역-TESOL 대학원 번역학과 겸임교수, 영미 소설 전공(sohntes@freechal.com).

1) 드래블은 1939년 영국 셰필드 출생으로 케임브리지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A Summer Birdcage* (1963); *The Needle's Eye*(1972) 등 여러 작품을 통해 정신분석학과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폭 넓게 다루고 있다. 제인 오스틴, 살럿 브론테, 조지 엘리엇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가장 영국적인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 여인의 한 맺힌 회고록이다.<sup>2)</sup> 『한중록』은 당시 사도세자를 정신이상으로 몰고 갔던 부자간의 심리적 갈등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유교문화와 노론, 소론 간의 정치 투쟁 등을 다각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한편 『붉은 왕세자빈』은 1부에서 사도세자의 비극을 중심으로 혜경궁 홍씨의 삶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회상 형식으로 재조명하고 있으며, 2부에서 현대판 혜경궁 홍씨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여성 바버라 할리웰(Barbara Halliwell)이 겪는 유사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드래블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한중록』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심층심리학적 고찰이다. 『붉은 왕세자빈』 1부에 등장하는 혜경궁 홍씨는 남편 사도세자의 심리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2부의 할리웰 박사는 우연한 계기로 『한중록』을 읽으며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에 관한 왕세자빈의 예리한 논평에서 시공의 제한을 초월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발견한다.<sup>3)</sup> 드러블의 이러한 분석은 실제 『한중록』의 주요 사건인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그동안 학계에서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한중록』의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특히 당시의 기록인 『정원일기(政院日記)』<sup>4)</sup>가 불태워져 버렸기 때문에 『영조실록(英祖實錄)』에 의존한 연구와 『한중록』 여러 이본들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도세자의 비극인 임오화변(壬午禍變)<sup>5)</sup>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그의 정신질환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과 당시 노론(老論), 소론(少論) 간 당파 싸움 등 정치구도의 희생자로 바라보는 견해로 이분된다.

정신분석학을 통한 체계적인 『한중록』 연구 가운데 대표적으로 김용숙의 것이

2) 이금희는 『한중록』을 『계축일기』와 『인현왕후전』과 함께 궁중문학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세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말하는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이 결합하여 독특하게 산출된 문학작품”이라고 말한다. 이금희, 『한중록』(국학자료원, 2001), 11쪽.

3) 마거릿 드러블(저)/전경자(옮김), 『붉은 왕세자빈』(문학사상, 2005), 221쪽.

4) 『승정원일기』의 준말, 정조가 지각이 들면서 자기 부친의 치참한 죽음을 한으로 여겨 임오화변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 것조차 꺼려 영조께 청하여 그에 대한 기록 모두를 불살라 버렸다. 최용기, 『閑中錄에 나타난 葛藤構造』, 『건국어문학』, 15권 1호(1991), 220쪽.

5) 임오화변이란 당시 28세의 사도세자가 1762년(영조 38년) 윤 5월 13일 창경궁 제 회경궁 앞뜰에서 부왕인 영조에게 자진을 강요당해 죽은 홍사사건으로 전고(前古)에 드문 정치적 참변이다. 이은순, 「현릉원지(顯陵園誌) 행장(行狀)과 한중록의 비교연구: 사도세자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7권 1호(1981), 40쪽.

있다. 김용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통해 『한중록』을 자세히 분석하고 불안신경증, 공포증, 조울증, 강박증 등의 증상들을 사례로 들면서 사도세자가 신경증 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드래블 역시 혜경궁 홍씨의 눈으로 바라본 남편 사도세자와 영조에 주목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당쟁에 관한 부분은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그녀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혜경궁 홍씨의 시각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오화변의 원인을 단순히 사도세자의 정신 질환만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다. 이은순은 당시의 정치구도와 관련하여 『한중록』은 혜경궁 홍씨가 회상체로 엮은 자기변명이라 볼 수도 있으며, 『영조실록』 역시 가해자 측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기록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조실록』의 편찬자들이 대부분 노론이고 보면 그 사건을 호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7)</sup> 이금희 역시 이와 관련 『한중록』의 작자인 혜경궁 홍씨가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로 대응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한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정신질환이나 정치적인 당쟁의 희생물로 사도세자가 사망했다는 다소 극단적이고 현상적인 이유 이면에, 드래블도 간파했듯이, 심층심리학적 차원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드래블의 견해는 임오화변에 관한 기존 해석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임오화변의 동인을 당사자인 사도세자를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의 틀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죽음을 명한 국왕이자 아버지인 영조의 심리적 갈등과 그러한 비극을 잉태한 정치, 사회적 맥락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원형(原型, archetype) 비평 및 집단적 무의식(集團的 無意識, the collective unconscious), 그리고 이에 의거한 동·서 문화형단적인 보편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6) 김용숙, 「사도세자의 비극과 그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한중록’ 연구」, 『국어국문학』, 19권(1958), 29~47쪽.

7) 이은순, 앞의 논문(1981), 41쪽.

8) 혜경궁 홍씨를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이 그 사건의 와중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행위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동안 사도세자의 비극에 가려져 간과되었다. 이금희, 앞의 책(2001), 34쪽.

즉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이 임오화변의 원인을 규명하는 필요조건은 되겠지만 반드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이 비극은 사건의 정황이나 여러 연구 등을 보건대 영조가 사도세자를 가족의 일원인 부자관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하를 대하는 군신관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영조 역시 집단적 무의식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중록』과 이를 소재로 한 영국 소설 『붉은 왕세자빈』을 심층심리학적으로 새롭게 비교·검토해보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중록』과 『붉은 왕세자빈』을 텍스트로 하여, 사도세자의 비극을 정신분석학의 틀로써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영조와 사도세자간의 관계와 당시의 정치사회적 정황 및 문화 등 전체적인 관련성 속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를 부자 및 군신 관계에 입각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영조의 자식살해에 대한 동인을 집단 심리학과 집단적 무의식, 더 나아가서 ‘희생양 원형’(the archetype of scapegoat) 혹은 ‘희생양 제의(祭儀)’라는 용의 개념에 비추어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고찰에 있어서 『한중록』과 『붉은 왕세자빈』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비교문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한중록』은 서양의 계몽주의 시대와 비슷한 시기였으며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전성기를 맞은 18세기에 쓰인 작품이다. 문화횡단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 『한중록』을 『붉은 왕세자빈』과 비교·검토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이나 당쟁설 등 양극단의 결론으로는 결코 동·서양을 아우르는 인간사와 그 저변의 심오한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인용되는 『한중록』 텍스트는 김동욱과 이병기가 교주(校註)한 『한동록』으로 하였다.<sup>9)</sup> 또한 마거릿 드래블의 소설은 전경자의 번역본 『붉은 왕세자빈』을 사용하였다.

## II. 『한중록』의 영역(英譯)과 소설 『붉은 왕세자빈』

『한중록』은 혜경궁 홍씨가 환갑을 맞이한 해부터 쓰기 시작하여 10년에 걸쳐

9) 김동욱·이병기, 『한국고전문학대계(14): 한동록』(민중서관, 1973).

한 많은 삶을 네 편으로 집필한 회고록이다.<sup>10)</sup> 혜경궁 홍씨는 아홉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동궁의 빈으로 간택되어 열 살에 가례를 치르고 입궐했다. 그러나 입궐 초기부터 징후가 보이던 사도세자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그는 결국 생부인 영조의 명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 정조는 보위에 오르자 사도세자를 가둔 뒤주를 외조부인 홍봉한이 들이게 했다는 이유로 외가인 풍산 홍씨 집안을 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정조는 후에 이를 후회하고 어머니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했으며 혜경궁 홍씨는 환갑을 맞이한 1795년 처음 붓을 들어 지난날의 아픔을 담담하게 되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 그러나 갑작스런 정조의 죽음으로 나이 어린 손자인 순조가 보위를 계승하게 되고 홍씨 집안의 정적이자 대왕대비인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자, 다시 두 외척 간에는 끊임없는 투쟁이 시작된다. 결국 혜경궁 홍씨는 노구를 무릅쓰고 67세와 68세에 2편과 3편을 집필한다. 그녀는 이후 이 모든 것이 남편 사도세자의 죽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71세에 사도세자의 병환과 비극, 즉 임오화변의 원인과 과정을 중심으로 마지막 글을 쓰며 10년에 걸친 회고록을 마감한다.<sup>11)</sup>

드래블은 2000년 대산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서울 국제문학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처음 오게 되어 한국 문학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드래블은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인 김자현(JaHyun Kim Haboush)이 『한중록』을 영어로 번역한 *The Memoirs of Lady Hyegyŏng: The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a Crown Princess of Eighteenth-Century Korea*(1996)을 읽는 내내

10) 평생 궁중문학을 연구한 김용숙은 “한마디로 『한중록』이라 하지만 실은 4편의 작품을 합한 것”이라며 네 편의 내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김용숙, 『한중록 연구』(정음사, 1987), 6쪽.

□ 제1편(其一): 回甲해에 친정조카의 要請을 따라 써준 글.

□ 제2편(其二): 正祖 승하 직후 둘째 동생 洪樂任의 賜死, 이미 故人이 된 父親의 逆賊 陋名 등에 충격을 받고 쓴 글. 67세 때 作, 思悼世子 사건 이후부터 正祖 初年까지 사이에 政敵들에게 謀陷받은 이야기, 三寸의 賜死, 父親의 失脚, 叔弟의 父親을 위한 變節의 真相해명.

□ 제3편(其三): 「其二」를 집필한 翌年 다시 붓을 들어 왕년에 正祖의 지극했던 孝誠을 되새기고 親孫 純祖의 孝誠에 呼訴하다. 英祖 末葉 특히 政敵 金龜注 一派의 世孫과 그 外家에 對한 謀陷의 내막.

□ 제4편(其四): 壬午禍變의 真相 暴露. 이는 父親이 뒤주를 바쳤다(獻一物)는 謀陷까지 받게 되며, 그 알리바이로 차마 말하고 싶지 않은 往年의 비극을 파헤침.

11) 정은임(교주), 『한중록』(이회문화사, 2002), 5~6쪽.

혜경궁 홍씨의 비극적 삶이 그녀에게 커다란 충격과 깨달음으로 다가옴을 느끼고 이를 소설화하기로 결심한다. 드래블은 서문에서 이 소설은 “200년이 넘는 그 옛날, 한국에서 씌어진 한 권의 왕세자빈의 회고록”에서 영감을 얻어 태어났으며 혜경궁 홍씨가 그녀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고 말한다.<sup>12)</sup> 드래블은 김자현의 번역이 다른 번역본들보다 역사적인 고증도 잘 되어있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13)</sup>

드래블은 『붉은 왕세자빈』에서 혜경궁 홍씨의 말을 통해 무엇보다도 “불행했던 내 남편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기질과, 우리나라 역사와 내 인생에 얹히고설킨 쓰라린 상흔을 남긴 그의 끔찍한 종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sup>14)</sup> 소설의 제1부는 드래블의 상상력이 불러낸 혜경궁 홍씨의 유령이 화자로 등장하여 독백 형식으로 18세기 당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화자는 자신이 왕세자빈으로 궁에 들어오게 된 경위와 남편 사도세자와 영조와의 갈등, 파란만장한 궁중 생활, 그리고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의 비극 등을 서술하고 있다.

소설의 후반부인 2부의 배경은 21세기 현대 영국과 한국이며, 화법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그리고 시제는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뀐다. 화자는 200년 후 혜경궁 홍씨의 현대판 모습이자 40세 전후의 바버라 할리웰이라는 의학윤리를 전공한 여성학자이다. 할리웰의 남편은 사도세자와 마찬가지로 자살충동을 지닌 정신병 환자이며, 아들은 어렸을 때 희귀한 병으로 사망했다. 할리웰은 익명의 인물이

12) 드래블, 앞의 책(2005), 6쪽.

13) 『한중록』은 1980년에 김진만(Kim Chin-man)과 브루스 K. 그랜트(Bruce K. Grant)에 의해 작품의 전문(全文)이 *Hang Joong Nok: Reminiscences in Retirement*로 번역되었으나 이 책은 번역의 대상 텍스트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 최양희(Yang-hi Choe-Wall)의 번역은 1985년에 *Memoirs of a Korean Queen*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이는 역자가 1974년 호주국립대학 동양학부 석사학위논문 의 일부로, 가람 이병기본(本)을 토대로 번역했던 것을 다시 간행한 것이다. 이는 전문(全文) 번역이 아니며, 혜경궁 홍씨가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궁으로 들어가기 전의 상황과 임오화변에 대한 진술 부분을 일부 번역한 것이다. 김자현의 번역은 1996년에 마무리되어 출판된 것으로, 현재 알려진 『한중록』의 14개 판본들 중 버클리 대학본(本) 『한중록』을 텍스트로 한 것이다. 이는 드래블이 『붉은 왕세자빈』을 쓰는데 직접 참고한 전문(全文) 번역으로 가치가 있다. 서경희, 『『한중록』의 英譯本 *The Memoirs of Lady Hyegyŏng* 연구』, 『온지논총』, 7권 1호(2001), 140~142쪽.

14) 드래블, 앞의 책(2005), 18쪽.

보내 준 『한중록』 영역본을 읽고 학회 참석차 서울에 도착한 후 창경궁과 수원 화성 등 『한중록』과 관련된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남편의 자살 시도와 아들의 죽음에 새롭게 마주하게 된다. 한편 할리웰은 학회에서 만나 3일간 사랑을 나누던 학자인 얀 반 요스트(Jan van Jost)가 지병으로 급사한 후 그의 아내 비베카(Viveca)를 만나 천 지에니(Chen Jianyi)라는 중국아이를 공동으로 입양해 키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국 작가 마거릿 드래블을 만나 『한중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드래블은 이를 소설화하기로 결심한다. 소설 전반부와 후반부의 화자들의 운명은 그들이 “고통스러운 상실감(grievous loss)”<sup>15)</sup>을 체험한다는 면에서 서로 공통점을 지니며, 작가는 18세기 조선의 혜경궁 홍씨가 당면했던 문제들을 현대 영국 여성인 할리웰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다.

드래블은 『한중록』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에 대한 탁월한 심리묘사와 관련, 혜경궁 홍씨의 심리 분석적인 기록이 프로이트나 융보다 앞선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sup>16)</sup> 드래블은 또한 작품에서 동·서양 역사와 문학에 등장하는 부자살해의 사례,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당파 싸움을 사례로 들어가며 모든 역사적 사실에는 시공을 초월한 보편성이 존재함을 역설한다. 드래블은 동·서양 비교문화적 틀에서 오늘날 서양에서 유행하는 소위 포스트모던한 사조를 비판하고 인간사에 보편성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

### III. 『한중록』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사도세자의 질환과 영조의 사도세자 살해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성군이었던 영조 역시 남다른 정신적인 질환을 지녔으며, 이 같은 기질은 선천적·후천적으로 사도세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이 논의되고 있다. 나경언의 고변으로 세자가 죄인으로 몰린 일, 세자 생모인 영빈 이씨(선희궁)가 세자의

15) Lee, Young-Oak, “An Interview with Margaret Drabble,” *Contemporary Literature* XLVIII, 4(Madison: Board of Regent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2007), p. 478.

16) 드래블, 앞의 책(2005), 406쪽.

처형을 영조에게 권고했을 가능성, 세자의 장인 홍봉한이 영조께 참언을 했다는 기존의 설들이 있다. 그러나 김용숙은 이러한 가능성들이 모두 근거가 없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사도세자의 정신병에 있다고 본다.<sup>17)</sup> 김용숙은 세자가 노론을 미워했기 때문에 노론에 업혀서 왕위에 오르게 된 영조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 장인 홍봉한을 비롯한 김상노, 홍계희 등의 모함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설, 즉 세자가 당쟁의 희생자였다는 주장들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한중록』의 주장은 ‘사적(史的) 객관성’에 의거한 것이다.<sup>18)</sup>

오늘날 서양의 정신분석적 방법을 적용하여 『한중록』이라는 텍스트를 자세히 분석하면, 불안신경증, 공포증, 조울증, 강박증 등 술한 증상들이 드러난다. 결국 사도세자에게 구비된 날카로운 정감, 그의 새디스트 혹은 범죄자로서의 소질을 갖춘 도착적 본능 자체는 그가 신경증 환자라는 진단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sup>19)</sup> 『한중록』의 저자 혜경궁 홍씨 역시 사도세자의 질병이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한중록』에 나타난 사도세자의 주요한 병은 의대병(衣帶病)과 화병(火病)이다. 의대병, 혹은 의대증이란 사도세자가 옷을 입지 못하는 괴병이며 세자는 7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했다.<sup>20)</sup> 옷에 대한 공포증은 또한 타부와 연결되기도 한다. 사도세자는 평소 부친인 영조에 대한 공포심과 이에 따른 강박증을 옷이라는 대상물에 투사했다. 사도세자의 강박현상은 평소 그의 무의식층에 깊이 억압되었으며 부친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인 심리는 바로 징벌의 형태로 엄격한 제한, 즉 금기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미개인들이 자연계의 재난을 모두 전지전능한 지배자의 탓으로

17) “作者는 무엇보다 이 千古에 없는 悲劇의 原因을 世子의 狂悖症 때문이라 했다. 처음에는 恐慌症, 恐怖症으로 始作하여 나중에는 心火가 나면 暈, 瞋을 죽이거나 內官들 매질하기부터 始作하여 드디어는 살인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實錄에도 ‘自代理之後 疾發喪性…自丁丑茂寅以後 病症益甚 當其疾作之時殺宮婢宦侍…’(註18)라 있어 한중록을 裏證하고 있다. 이리하여 上下가 다 或是 ‘父王이나 世孫을 어찌하지 않나’하는 恐怖心에 사로잡히어 차마 입 밖에는 내지 못해도, 終局에는 三百年宗社가 風前の 燈火 같은 運命에 놓이게 되니 英祖께서도 할 수 없이 大處分을 내리셨다는 것이다.” 김용숙, 앞의 논문(1958), 11~12쪽.

18) 김용숙, 앞의 책(1987), 193~197쪽.

19) 김용숙, 앞의 논문(1958), 48쪽.

20) “丁丑年부터 衣帶의 頗이 나시니 그 말이야 어찌 다 하리오…그 六月부터 火症이 더하사 사람 죽이시기를 始作하오시니…” 김동욱·이병기, 앞의 책(1973), 181쪽.



돌렸듯이 사도세자의 피해망상에서는 아버지인 영조가 그런 대상이 되었다.<sup>21)</sup>

한편 영조의 편집적인 자애와 사도세자의 맹종적인 효심과의 갈등 구조 역시 문제가 된다.<sup>22)</sup> 또한 세자가 성욕기 때, 같은 또래의 내인 여자 아이들과의 놀이에서 엇치락뒤치락 어울리며 정복의 잔인한 쾌감을 맛보았을 것이니 이것이 뒤에 사디즘(Sadism)적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리하여 자라갈수록 부왕에 대한 어려움, 증오감은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다 본능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뒤섞이어 부왕의 눈을 피하여 병기에 대해 각별한 애착을 가진 것도 부왕 증오에 대한 무의식적 의도의 발로였을 것이다.<sup>23)</sup>

물론 사도세자에 대한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분석은 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의 정신적인 문제에만 국한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현릉원지(顯陵園誌)」와 「행장(行狀)」의 연구결과 사도세자가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 복선을 내포한 대리청정의 명을 받기 전까지는 전혀 부자간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sup>24)</sup>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세자의 정당성 문제가 깔려 있다는 주장도 있다.<sup>25)</sup> 즉 임오화변은 일개 사가(私家)의 폭력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이 인륜을 중시하는 유교사회에서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좌우하는 왕과 신하간의 일이고 보면 이 사건의 과급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21) “Freud는 역시 「토텐과 타부」에서 오늘날의 강박 신경증환자를 Taboo 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reud의 이와 같은 Taboo에 대한 精神分析學的 考察의 결과는 本 衣帶病이 上記한 強迫病이고 따라서 Taboo 病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규동, 「「衣帶病」에 대한 精神分析學的 考察: 閑中錄에 浮刻된 思悼世子の 病歷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71), 26~27쪽.

22) “思悼世子の 病은 不安의 代置物이었다. 不安에서 解放되기 위해서 遊戲로 맞섰고, 이것이 건디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자 病으로서 逃避를 한 것이다. …世子の 意識 葛藤의 根本的인 이유는 愛子之心과 敬父母之心이 하나로 和合하지 못한데서 起因하였다. 英祖의 偏愛로 世子は 慈愛를 입지 못하고 이것이 契機가 되어 意識의 방향은 英祖의 노여움을 가져와 慈愛와 孝의 葛藤이 누적되었다. 이런 갈등의 누적은 결국 壬午禍變의 大慘事의 根本的이고 감정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최용기, 앞의 논문(1991), 242쪽.

23) 최용기, 위의 논문(1991), 239~240쪽.

24) 이은순, 앞의 논문(1981), 49쪽.

25) 영조의 관점에서는 사도세자는 통치자로서 결격사유가 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론의 의리(신임의리)를 흔쾌히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소론의 대신(이종성, 조제호)을 신뢰하는 등 정치노선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박현모, 『정치가 정조』(푸른 역사, 2001), 44쪽.

고 보는 견해이다.<sup>26)</sup>

그렇다면 혜경궁 홍씨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이은순은 혜경궁 홍씨가 『한중록』이라는 명문(名文)을 통해 임오화변의 근본적인 원인을 세자의 정신병의 발생과 그 악화로 돌렸다고 보았다.<sup>27)</sup> 혜경궁 홍씨의 입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한중록』 기사(其四) 부분의 마지막으로 그녀는 ‘일물(一物)’, 즉 사도세자를 죽게 만든 뒤주를 누가 들게 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자신의 아버지 홍봉한이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또한 뒤주를 들인 것은 영조의 처분임을 인정하면서도 임오화변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영조가 부득이하게 한 일임을 강조한다.<sup>28)</sup> 한편 임오화변 직후 당시 노론 역시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해 둘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시하는 세력인 벽파(僻派)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는 세력인 시파(時派)였다. 혜경궁 홍씨는 이 두 파에 관하여 벽파의 의견은 사도세자가 역적이라는 것이니 틀렸고, 시파

26) 이은순, 위의 논문(1981), 40쪽.

27) 이은순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대리청정을 맡고 있던 사도세자의 변사는 그 스스로의 자연사가 아니고 영조의 결단에 의한 타살인 이상 무엇인가 정치적인 권력과의 연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둘째, 사도세자가 국정을 감당키 어렵고 나아가 왕실이나 국가 장래를 위하여 죽이기까지 해야 할 중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병이 참변일 직전에 생긴 일이 아니라면 보다 의문의 여지는 남는다. 셋째, 『한중록』 속에 보이는 사건 배경 설명에서 혜경궁 홍씨는 지나치리만큼 그의 친정인 홍씨 일문을 변명하고 무죄와 한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인 영조의 처사를 만부득이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넷째, 시기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노·소론의 대립이 심한 때였다. 그런데 『한중록』 같은 명작을 남긴 이지적인 혜경궁 홍씨가 그 같은 당쟁의 분위기를 분명히 감지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애써 피하고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가 극구 변호하는 홍씨 일문의 옥사는 바로 이 당쟁의 소산물이다. 이은순, 위의 논문(1981), 52-53쪽.

28) “한편 議論이 英廟 處分이 거룩하시다 하여 先親만 罪를 삼으라 하여 一物 들었다하니 一物 아니 들으신 曲折은 다른 記錄에 올랐으니 여기는 또 아니 쓰며 이 말하는 놈이 英廟께 精誠인가, 景慕宮께 忠節인가, 先王이 某年일을 爲하노라 하면 無論 東西南北之言하고 假借하시고 某年某日에 是非 있다하면 無論 有罪無罪간 先王 입으로 그렇지않다 못하시는 줄 알고 某年 일을 가지고 寄貨를 삼아 저희 뜻대로 簸弄하여 이리하여 사람을 害하고 저리하여 忠臣이라 自處하니 萬古에 이런 일이 어이 있으리오. 四十年來에 某年일로 忠逆이 混雜하고 是非가 倒置하여 지금 정치 못 하였으니 景慕宮 병환이 만만 하릴없으시고 英廟 處分이 迫不得已 하신 일시오, 一物은 先祖께서 스스로 생각하신 것이오, 내린지 先王이런지 至痛은 自至痛이오, 義理는 自義理로 알아 罔極중 保全하여 宗社를 길게 支撐한 聖恩을 感祝하고 그때 諸臣들이 하릴없이 말쑥한 것을 後人이 想像하여 때만남을 不幸히 여길 따름이지 某年 되어 가던 일을 내 차마 記錄할 마음이 없으나...” 김동욱·이병기, 앞의 책(1973), 297, 299쪽.

의 의견은 영조가 잘못했다는 것이니 둘 다 틀렸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sup>29)</sup>

결국 혜경궁 홍씨 역시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을 영조와 사도세자와의 관계 내지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는 개인적으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일종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궁궐 생활에서 야기되는 왕실의 억압적 생활에서 오는 질환일 수도 있다. 이 작품은 또한 소외와 단절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병과 각종 심리적 질환들을 다루고 있어 『붉은 왕세자빈』과 함께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에게 하나의 훌륭한 정신병 ‘케이스 스터디’가 된다. 영조와 사도세자가 각기 다양하면서도 명백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sup>30)</sup>

#### IV. 『붉은 왕세자빈』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소설 1부의 화자인 혜경궁 홍씨는 노년의 지혜와 아울러 사후의 삶에서 19세기와 20세기의 인류학과 정신분석학 계통의 저서들을 독파하여 얻은 지식들을 담담히 진술한다.<sup>31)</sup> 혜경궁 홍씨는 또 소설 속에서 “우리 중에는, 비록 대단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용이나 프로이트의 흥미로운 해석이나 이론에 견줄만한 진보적인 사고를 지녔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한다.<sup>32)</sup> 이와 관련, 이규동은 『한중록』의 작가가 사도세자의 아내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녀가 정신기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임오화변에 관한 정밀한 분석과 기술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33)</sup> 『한중록』에서뿐만 아니라 소설에서 역시 언급되는 밀실 공포증, 천둥 공포증, 옥에 대한 공포증, 의관에 대한 병적 반응과 의대증, 나인들에 대한 새디스트적 접근 등 사도세자가 지닌 여러 가지 병적 질환은 이 작

29) “두 파가 틀렸다는 논리는 아버지인 홍봉한이 말한 대로 사도세자의 정신병이 위중하기 때문에 영조가 나라를 위해 사도세자를 죽였다는 결론에 이른다. 핵심은 혜경궁 홍씨가 자신의 아버지 홍봉한을 두둔하는 것이다.” 이덕일, 『당쟁으로 보는 한국역사』(석필, 1991), 405쪽.

30) 드래블, 앞의 책(2005), 411~412쪽.

31) 위의 책, 35쪽.

32) 위의 책, 24쪽.

33) 이규동, 앞의 논문(1971), 21쪽.

품을 우선 프로이트의 틀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소설의 두 여주인공들인 혜경궁 홍씨와 할리웰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남편의 정신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세자는 부친 영조대왕에 의해 학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광기와 의대증이 나타나고, 이어 궁녀와 내시뿐만 아니라 궁궐 밖 사람들과 애첩 빙애마저 살해하는 증상을 보인다. 심지어 사도세자는 혜경궁 홍씨에게 바둑판을 던져 이마에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할리웰의 남편 또한 부친의 영향으로 “죽었으면, 죽었으면, 죽었으면...”을 단조롭게 되풀이하는 등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있다.<sup>34)</sup> 그는 비록 사도세자처럼 의대증이나 살인의 경험은 없으나 부인과의 연쟁 끝에 ‘살인자’라고 비난하며 두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른 적도 있다.<sup>35)</sup> 또한 사도세자는 뒤주에서 굶어 죽었으나 할리웰의 남편 피터는 심한 약물투여와 정신병원 감금으로 산송장과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 『한중록』의 사도세자처럼 그 또한 부친과의 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아 심한 정신분열증을 보이고 있다. 피터는 육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심리적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는 통증이 심하고 흉측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병은 그가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우울증 성향의 외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할리웰은 또한 남편의 피부병과 자살적 성향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도 유명한 자기 시아버지의 탓으로 돌린다.<sup>36)</sup>

또 다른 공통점은 사도세자가 지닌 밀실공포증으로 이는 그가 후에 뒤주에서 사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소설의 2부에서 할리웰은 서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여 얀 반 요스트 교수의 강연을 듣는다. 이 강연의 제목은 ‘납관: 종말에 관한 명상’(The Leaden Casket: Meditations on the Apocalypse)으로, 얀은 인간이 “육신 안에서 살아 있는 채로 매장되어 덧에 걸리듯 관 상자 속에 갇힌 몸으로서 텅 빈 불모의 우주 안에서 점점 어두워지는 행성 위에서 홀로 서서히 회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다가가는 존재”라고 설명한다.<sup>37)</sup> 얀은 할리웰과 우연히 만나 3일간 사랑

34) 드래블, 앞의 책(2005), 230쪽.

35) 위의 책, 248쪽.

36) “피터의 아버지는 그녀가 추종하기에는 지나치게 벽찬 인물이었다. 그는, 그 화상은 자기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아들은 실패했고 결국 정신이상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정하지 않았고 군주국가의 왕처럼 무자비하고 독재적이었다.” 위의 책(2005), 223~224쪽.

37) 위의 책, 287쪽.

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3일째 밤에 지병으로 급사하는데, 소설은 만약 안이 죽지 않았다면 그의 차후 논문은 ‘납관과 뒤효’(The Leaden Casket and the Rice Chest) 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할리웰이 안을 ‘사도 세자’(the Prince of Mournful Thoughts) 혹은 ‘납관의 왕자’(the Prince of the Leaden Casket)로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sup>38)</sup> 뒤효 속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세자는, 홀로 관 상자 속에 갇혀 회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다가가는 존재인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동서고금을 초월한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일 것이다.

한편 드래블은 이 소설에서 정신 병리학의 사례를 비교문학적·비교문화적 시각을 가지고 시공을 초월하여, 다문화주의와 문화 횡단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1부의 화자인 혜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이름 ‘사도’(思悼)에 ‘애도(哀悼)’의 의미가 들어있으며 이를 슬픈 이름이라고 해석한다. 그녀는 한결을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후에 알아낸 바에 의하면 ‘사도’는 18세기 프랑스 소설가 마르키 드 사드(Marquis de Sade)의 ‘사드’와 비슷해서 ‘사드’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명사형인 ‘사디즘’(Sadism)과 우연히 연결된다고 말한다.<sup>39)</sup> 소설에서 영조와 사도세자가 각기 다른 형태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주고 있음은 남성 사회, 특히 황실과 같은 권위 있는 사회내의 또 다른 병리 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작가가 사도세자의 영어 명칭인 ‘Sado’를 마르키 드 사드라는 인물과 대조시키며 ‘Sadism’이라는 말과 연관시키고 있는 점 역시 문화횡단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드래블의 이러한 ‘사도’와 ‘사드’와의 다소 억지스러운 연계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은 흥미롭게도 이규동의 연구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된다. 이규동은 사도세자의 영조에 대한 태도는 “마조키스틱한 효통(孝痛)의 극치”를 이루고 또한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자아(ego)로 내공(內攻)된 적의의 발로, 즉 새디즘과 메조키즘의 공존”을 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sup>40)</sup>

38) 위의 책, 281쪽.

39) “사도세자와 내가 죽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내가 알아낸 것에 의하면, ‘사도’는 마르키 드 사드의 ‘사드’와 발음이 비슷해서 ‘사드’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명사형인 ‘사디즘’하고도 우연히 연결된다. 물론 이는 무의미하고 우연한 연관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사드 후작이나 (기이하게도 옷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자허-마조호 백작은 사도의 고통에 대해 알고 있기는커녕 한국이라는 나라가(Korea, Corea, 혹은 Corée 중 어느 것으로든)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던 사람들이다. 어쨌거나 이 연관성이 사도세자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위의 책, 40쪽.

그러나 드래블은 단순히 프로이트적 정신병리학의 틀로써만 이 소설을 마무리하지 않는다. 그녀는 소설에서 프로이트 벗어나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동양의 유교제도와 서양의 가부장제의 한계를 같이 비판하고 기존 남성 지배체제를 벗어나는 여성 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드래블의 이러한 “프로이트…다시 쓰기(rewriting…Freud)”<sup>41)</sup>는 그녀의 여성관과 맥을 같이한다. 그녀 작품의 주인공들은 가부장적인 문화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운명’(fate)이라는 권위적인 가면 뒤에 자신의 독립성을 감추고 있다. 또한 작가가 “사건들을 조작(manipulates events)”하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들은 행운들(lucky fates)의 결과로 페미니스트가 된다. 이처럼 드래블은 운명이나 우연 등을 소설에 삽입하고 있다.<sup>42)</sup>

이는 작가가 고전적인 운명론을 받아들임으로써 프로이트의 정신요법(psychotherapy)을 거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심리학적 결정론을 따르고 있는 프로이트에 따르면, 유아기에 겪은 내면적인 문제들이 성격의 근간을 형성하며 따라서 정신분석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만 그 문제들을 파악·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드래블은 우연, 사건, 운명이라는 틀을 통해 이러한 논리를 극복한다. 즉 작가가 주인공들의 운명을 바꿈으로써 행운을 얻게 된 여성들은 프로이트가 제시한 자기분석에 연연하지 않고 작가가 부여한 행운과 자유에 의해 주어진 삶을 극복하고 낙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드래블은 “사람의 운명은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 사람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말한다.<sup>43)</sup>

결국 드래블은 18세기 조선의 여인과 21세기 영국 여성, 즉 혜경궁 홍씨와 할리웰을 각각 가부장적인 틀에서 탈피한 독립적인 여성으로 그려냄으로써, 기존 프로이트 식의 결정론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한중록』의 주인

40) “따라서 本(본) 衣帶病(의대병)에서 보이는 강박 현상에는 새디즘적 경향이 混在(혼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강박증이란 Freud에 의하면 병적으로 強化된 잔인한 超自我(sadistic super-ego)와 자학적인 自我(masochistic ego)의 갈등임으로 이런 갈등이 자기 내에서 방어기제로 통합되어 성공적인 반동형성의 성격을 완성하면 별문제이거나 그렇지 못할 때는 自己分裂에 이를 수도 있음은 뻔한 일이다.” 이규동, 앞의 논문(1971), 25쪽.

41) Bokar, Nicole Suzanne, *The Novels of Margaret Drabble: this Freudian family nexus*(N.Y., Washington: Peter Lang, 1998), p. 9.

42) *Ibid.*, p. 141.

43) *Ibid.*, p. 1.

공 혜경궁 홍씨의 삶 역시 기구하지만 그녀는 우연히 자신의 생일과 같은 날 태어난 손자의 탄생이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말하며 이 같은 내용은 『붉은 왕세자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sup>44)</sup> 또한 드래블은 타인과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는 자율적인 여성상을 창조하는데 이는 작품에서 ‘여성들 간의 유대’로 나타난다.<sup>45)</sup>

혜경궁 홍씨는 남성들보다도 오히려 사도세자의 애첩인 나인 출신 빙애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빙애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붉은색 비단치마’를 입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sup>46)</sup> 이는 혜경궁 홍씨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성들 간의 유대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붉은 왕세자빈』의 주인공 할리웰 박사 역시 자신의 연인이었던 안 반 요스트의 부인 비베카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아이를 입양해 독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리웰은 비베카와 공동으로 입양한 중국인 출신 천 지에너를 중심으로 그녀와 여성간 유대를 맺고 있다.

결국 작가는 단순히 프로이트적인 틀로서만 이 작품을 결론 내리지 않고, 오히려 열린 결말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작가의 독특한 페미니즘의 시각을 주입함으로써 동양의 고전을 바탕으로 현대 세계에서 여성의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작가는 『붉은 왕세자빈』을 통하여 단순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내재한 보편적인 심리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극복할 여지를 제시함으로써, 가부장적 권위를 벗어날 수 있는 여성들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 V. 『한중록』과 『붉은 왕세자빈』의 원형분석적 접근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치적 맥락에서 파악할 경우 이는 국정을 운영하는 영조와 그를 둘러싼 소위 노론이라는 집단적 무의식에 그 초점을 맞춰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사건은 영조를 둘러싼 이해집단과 관련된 행위이며 우리들은 그러한 행위 저변에 깔린 집단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즉 영조의 행위는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

44) “...1790년에...나의 손자인 순조가 태어났다...6월 18일은 나의 생일이였다. 그 우연의 일치가 나에게 길조로 느껴졌다.” 드래블, 앞의 책(2005), 184쪽.

45) Bokar, *ibid.*(1998), p. 9.

46) 『한중록』에서 빙애가 단편적인 인물로 소개되었던 것에 비해 『붉은 왕세자빈』에서는 혜경궁 홍씨에게 각별한 인물로 등장한다.

는 소위 노론이라는 집단의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아들 사도세자마저 희생양으로 바치는 행위는 소위 군신관계를 부자관계에 선행시키는 당시의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중록』과 관련된 사도세자의 비극과 당쟁 관련 논의는 『붉은 왕세자빈』에서 한층 더 깊게 융의 집단적 무의식과 보편성 개념과 연계된다. 이는 바로 드래블의 『한중록』 독법이기도 한 것이다.

융에 의하면 개인의 경험이나 습득에 의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있는 더 깊은 층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이 ‘집단적 무의식’(das collective Unbewußte)이다. 융은 ‘집단적’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 무의식이 개인적이 아닌 보편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개인적 정신과는 달리 모든 개인에게 어디서나 똑 같은 내용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은 소위 ‘원형들’(die Archetypen)”이라고 말한다.<sup>47)</sup> 김형효는 “신화와 설화와 같은 영역은 ‘하나의 가정적 종합’(une synthèse présumptive)인 셈”이 되는데 그 이유는 신화와 설화가 모든 철학적·이성적 인식의 대전제요 원형이기에 ‘가정적’이며, 또한 그 세계는 모든 철학적 분절화를 근거하게 하는 원시적 묘판이기에 ‘종합’이라고 설명한다.<sup>48)</sup>

사도세자의 비극은 원시적 제의 혹은 신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윌프레드 L. 게린(Wilfred L. Guerin)은 제임스 G. 프레이저 경(Sir James G. Frazer)의 저서 『황금가지(The Golden Bough)』를 예로 들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신성한 왕의 처단’(killing of the divine king) 신화와 ‘희생양’(scapegoat) 신화를 언급한다. 즉 고대인들에게 지도자는 신성하거나 반(半)신성한 존재로서 그의 삶은 자연과 인간 존재의 순환과 동일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시로 인해 그들의 안전은 신왕(神王, god-king)에 달려있게 된다. 강력하고 건장한 지도자는 자연과 인간의 생산력을 보장하지만 병들고 불구가 된 왕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재앙과 질병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신(人神)은 그의 힘이 빠지는 증후를 보이는 즉시 죽음을 당해야 하며 그의 영혼은 위협적인 부패로 상 처받지 않기 위하여 건장한 후계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sup>49)</sup>

47) 융, C. G., 『융 기본 저작집(2): 원형과 무의식』(술출판사, 2002), 105~106쪽.

48) 김형효, 「古代神話에 나타난 韓國人의 哲學的 思惟」, 한국철학회(편), 『한국철학사(上)』(동명사, 1989), 8~9쪽.



그러나 노쇠해진 왕은 죽지 않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종 상징적이고 대리적인 존재를 내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희생양’의 죽음이며 ‘희생양 원형’(the scapegoat archetype)이다.<sup>50)</sup> 예들 들어 고대사회의 왕들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자식을 제물로 하는 풍습이 많이 있었는데,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통치자가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셈 민족의 예나 이스라엘인 크로누스(Cronus), 모아브(Moab) 왕의 예 등은 바로 이런 풍습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 질병이 성행할 때 백성의 한 사람을 제물로 하여서 재난을 막았다는 고대 히랍식민지 마르세이유에서의 예나 고대 아테네인의 풍습 등에서 이러한 풍습을 찾아볼 수 있다.<sup>51)</sup> 영조의 사도세자 살해는 이러한 신화와 유사성을 지닌다.<sup>52)</sup>

이는 사도세자와 영조와의 관계를 단순히 부자지간이 아닌 왕과 왕세자라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는 것과 연관이 있다. 공교롭게도 사도세자는 왕세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자관계와 더불어 왕과 왕위 계승자라는 특수 관계, 즉 이중적인 역동관계가 성립된다. 즉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부자와 군신, 즉 삼강오륜이 지정한 부자유친(父子有親)과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중첩적 관계에 있다. 부자지간은 천륜을 바탕으로 한 조건 없는 사랑의 가족관계이고, 군신지간은 의리에 입각한 정치적인 관계이다. 즉 부자사이에 강조되는 덕목은 바로 ‘친’(親)이라는 개념이며,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 우선되는 덕목은 ‘의’(義)의 개념이다.<sup>53)</sup>

49) “The man-god must be killed as soon as he shows symptoms that his powers are beginning to fail and his soul must be transferred to a vigorous successor before it has been seriously impaired by threatened decay.” Guerin, Wilfred L., Earle Labor, Lee Morgan, Jeanne C. Reesman, and John R. Willingham,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4th Ed.(NY, Oxford: Oxford UP, 1999), p. 169.

50) *Ibid.*, p. 169.

51) 이규동, 앞의 논문(1971), 27쪽.

52) “사도세자의 죽음도 바로 이런 속죄양으로서의 의의가 큰 것 같다. 즉 넓은 뜻으로는 이씨 왕조의 종사를 활기 있게 연장시키고 가족적으로는 부왕의 생명을 연장기 위한 자식으로서의 윤리적인 희생이며 질병과 연관시켜보면 이조의 모든 가족신경증이 사도세자라는 속죄양으로서 일단 정리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도세자의 제물이야말로 이조의 중흥기인 소위 영정시대를 꽃피우게 한 것이 아니었던가.” 위의 논문(1971), 27쪽.

53) “유교의 사회관과 세계관에 의하면 국가와 사회는 단지 가족의 확대물에 지나지 않으며 유교의 으뜸 되는 덕목인 효(孝) 또한 사회의 모든 위계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다. 즉 이 효는 대 인간적 지배—복종의 원리로서 체계적으로 합리화되었다.” 최문형, 「유교와 기독교의 공적윤리」, 『한국전통사상의 탐구와 전망』(경인문화사, 2004), 370쪽.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군신관계는 부자관계에 비하여 그 연대성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자관계에서 자녀의 부모 봉사를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비해 군신관계의 의무는 언제든지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작계는 당파, 혹은 크게는 왕권을 이용한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sup>54)</sup> 즉 영조의 아들 살해 행위는 부자유친과 군신유의가 중첩된 유가적 집단무의식에 의한 패륜행위라고 할 수 있다.

노론, 소론 간의 당론이 부자간을 떼어놓아 그것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비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즉 영조는 만약 사도세자가 왕이 되고 난 후 자신이 선왕 경종에게 취했던 의미 명분을 재론하고 나온다면 자기의 왕위계승의 명분이 무너지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던 처지였다.<sup>55)</sup> 즉 사도세자가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미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 노선을 밝히는 세자였기 때문이었다.<sup>56)</sup>

54) “관계, 즉 룬(倫)을 중요시하는 조선 유교사회, 더군다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으로 여기는 조선사회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패륜 만큼이나 잔악하다고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 살해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는 영조가 직접 사도세자에게 뒤주에 들라고 명을 내리고는 자신이 손수 대못을 박았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김용숙, 앞의 책(1987), 192쪽.

55) 이은순은 무엇 때문에 영조가 세자가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노론에 휩싸여 벗어나지 못하고 세자와 대립되는 노선을 고수하여야 했는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경종의 사인(死因)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변명한 영조에 대해 노론이 이를 이용하여 그를 명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항상 딜레마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은순, 앞의 논문(1981), 56~57쪽.

56) 이은순은 성락훈의 『韓國黨爭史』를 인용하며 “대의에 관한 문제는 부자간이라도 의견이 동일하리라고 보증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것이 영조와 그의 아들인 사도세자와의 사이에 신·임(辛·任)에 대한 의견의 상위(相違)가 드러나게 됨에 아버지 손으로 자신을 나무 뒤주에 넣어 죽게 한 고금미문(古今未聞)의 참혹한 사실로 나타나고야 말았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신임(辛任)에 대한 견해의 상위(相違)”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소론이 뒷받침하고 있는 경종이 34세의 장년이 되도록 그 소생자가 없자, 노론측은 그를 핑계로 왕세자책봉을 서둘게 되었다. 이러한 중에 끝내 소론의 주장이 관철되자 연잉군(延昞君, 후일 영조)의 세자책립을 강력히 주장했던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이 중좌를 받게 된다. 1722년 소론은 또다시 옥사를 일으켜 노론을 정치무대에서 말끔히 몰아냈다. 이것을 일컬어 신·임사옥(辛·壬事獄)이라 한다. 그후 경종이 죽고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은 영조를 그들 세력에 얹어매어 그들의 독무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영조는 자신에게 공신으로 자처하는 노론들의 보필만으로 그의 정치적 경론을 펴는 데 반드시 어지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탕평론 등을 통해 그들을 물리치고자 했지만, 사도세자는 부왕의 탕평론이라는 미명하의 소위 노론전체를 냉철히 관찰하고 있었다. 소론들은 그러한 영조의 허점과 세자의 상이한 소신을 이용하여 세자의 측근에서 신·임 사건 문제와 경종의 사인(死因) 문제 등을 부각시켜 그 목적 달성의 운동을 전개했다. 이은순, 위의 논문(1981), 55~58쪽.

이는 왕위와 왕의 권위를 계승하고자 하는 집단적 무의식의 발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 역시 남아있는 자료에 입각한 견해일 뿐이며 『정원일기』 등 주요 관련 자료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추론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이러한 논의를 살펴볼 때 임오화변의 핵심 인물인 영조와 사도세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기록자 가운데 하나인 혜경궁 홍씨 또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라는 ‘정반대로 보이는 두 힘’(two seemingly opposing forces)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그녀 또한 사적인 존재에서 공적인 존재로 바뀐다. 혜경궁 홍씨는 사도세자가 죽고 난 이후 ‘아내로서의 임무’(wifely duty)와 정조의 ‘어머니로서의 임무’(maternal duty)가 부여하는 갈등에 시달렸는데, 전자는 그녀에게 자결을 요구했으며 후자는 그녀에게 수치스러운 삶을 요구했다. 결국 그녀는 ‘조선 왕조의 안녕에 도움을 주는’(benefitted dynastic security) 후자의 삶, 즉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중시하는 ‘공적인’(public) 임무를 택했다.<sup>57)</sup> 이처럼 혜경궁 홍씨가 처한 상황은 개인의 삶과 집단의 삶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이 같은 갈등을 정화하기 위해 공적인 영역으로 자신을 승화한다.

개인적인 자아와 공적인 자아 사이의 공간은 더욱 하나로 엮히게 된다. 그녀는 개인적인 자아와 공적인 자아 사이의 구분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공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개인적인 자아를 통합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혜경궁 홍씨는 그녀가 다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도의상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깊이 있고 통렬하게 느낀다. ...그녀는 개인적인 자아를 강도 높게 후회함으로써 공적인 자아의 실추를 보상받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녀의 두 자아 사이의 상호의존성은 완벽해 지는 것이다. 『한중록』 4부에서 그녀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자발적인 내면의 삶에 공간을 할애했지만, 그들의 개인적이고 공적인 자아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sup>58)</sup>

57) Haboush, JaHyun Kim, “Private Memory and Public History: The Memoirs of Lady Hyegyŏng and Testimonial Literature,” Young-Key Kim-Renaud(ed.), *Creative Women of Korea: The Fifteenth Through the Twentieth Centuries*(NY: M.E. Sharpe, 2004), p. 135.

58) “The space between private self and public self becomes ever more closely intertwined. She

즉 개인적 자아와 공적인 자아 사이에 갈등을 느낀 혜경궁 홍씨는 공적인 자아를 택하여 이를 보상받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한중록』을 통해 객관적 위치에서 시아버지 영조와 남편 사도세자의 내면의 세계를 기술하면서 아울러 그들의 공적, 사적 자아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공과 사의 구분은 가족관계 내에서의 개인적인 효(孝)의 윤리,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공적인 충(忠)의 윤리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혜경궁 홍씨의 경우는 훨씬 복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충과 효의 개념에 입각하여 『한중록』에 나타난 혜경궁 홍씨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영조에 대한 혜경궁 홍씨의 효행은 영조가 감탄하여 ‘가효당’이라는 당호를 내려준 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효당’이라는 당호는 남편인 사도세자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주장이 있다.<sup>59)</sup> 혜경궁 홍씨가 아들 정조를 영조에게 바친 것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시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더 나아가 혜경궁 홍씨 모자에게 있어서의 ‘효’는 일반 사가(私家)와는 달리 절대권자인 시부에게는 곧바로 ‘충’으로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sup>60)</sup>

---

acknowledg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lves but feels that the redemption of her public self is indispensable to the integrity of her private self. Time and time again, Lady Hyegyŏng stresses the depth and acuteness of shame she felt for failing to live up to what she accepts as the legitimate demands of her multiple roles. She is convinced that only by feeling and confessing the acuteness of her shame, the degree of which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distance she has fallen from the ideal, can she be redeemed. She tries to atone for the failings of her public self by the intensity of the remorse of her private self, and in this way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selves becomes complete. Even in the fourth memoir, though she allows space to the autonomous interior lives of Yongjo and Sado, she does not deviate from her belief i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rivate and public selves.” Haboush, JaHyun Kim, *The Memoirs of Lady Hyegyŏng: The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a Crown Princess of Eighteenth-Century Korea*(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p. 10.

59) “자신의 아들을 손수 죽인 영조가, 조선조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치의 덕목 중 으뜸인 효행을 가상히 여겨 며느리에게 표창함으로써, 혜경궁 홍씨의 효행은 절대권자인 왕으로부터 공인받은 셈이다. 따라서 남편을 잃은 후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가족관계가 혜경궁 홍씨의 효행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결속/완전한 결속, 낮은 지위/높은 지위, 가족으로서의 부분적 인정/완전한 인정의 대칭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금희, 앞의 책(2001), 36~37쪽.

60) 이금희, 위의 책(2001), 38쪽.

또한 혜경궁 홍씨가 남편에게 보여준 태도에 있어서도 그녀가 “결혼 초부터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었으며, 이들은 처음부터 ‘이상적 부부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sup>61)</sup> 또한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전에 둔 혜경궁 홍씨와 홍봉한은 적극적으로 사도세자의 참화를 막았다기보다 세손을 지키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혜경궁 홍씨의 이러한 태도는 이미 기울어버린 남편의 형세보다 기존의 틀 속에서 키워나가야 하는 아들의 안위를 더 중하게 여긴 모정의 발로인 것이다.<sup>62)</sup>

이 같은 공과 사, 충과 효의 갈등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에서 끝나지 않고 정조에게도 계속된다. 이 역시 『한중록』과 임오화변 논의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보편적인 맥락을 갖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조 역시 자신이 열한 살 때 목격한 사도세자 사건으로 인해 재위 기간 중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애통한 마음’을 경험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차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선대왕 영조와의 약속(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과 사도세자 원수의 처단(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도리) 사이의 모순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충의(忠義)의 윤리와 효친(孝親)의 윤리가 대립될 때 효친의 문제를 우선시하여 정치로부터 퇴장할 수 있었던 몇몇 사대부들과는 달리 충의의 문제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왕의 특수한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정조의 모습은 상호 모순되는 공적 의리와 사적 은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왕의 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가족관계를 파탄시킨 비정한 정치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슬퍼했다.<sup>63)</sup> 결국 정조는 군신의 윤리(충의, 영조와의 관계)와 부자의 윤리(효친, 사도세자와의 관계) 중 어느 하나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sup>64)</sup>

『붉은 왕세자빈』 2부에서는 공과 사의 갈등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주인공

61) 위의 책, 42쪽.

62) 위의 책, 54쪽.

63) 박현모, 앞의 책(2001), 45~46쪽.

64) 후에 정조는 사도세자 사건에 대해 다른 일에 의탁하여 그 모해자를 처분함으로써 선대왕 영조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역시 충의의 윤리와 효친의 윤리가 충돌하는 것을 막는다. 위의 책(2001), 54~55쪽.

할리웰에게는 두 명의 남편이 존재한다. 하나는 정신병을 겪는 법적 남편인 피터이며 다른 하나는 상징적인 남편(연인)인 얀 반 요스트이다. 할리웰이 이미 죽은 아들과 병든 남편을 뒤로 하고 안과 교분을 갖는 것과, 그가 급사한 이후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천 지에니를 그의 부인과 공동으로 입양하는 모습은, 그녀의 삶이 이미 사적인 지평을 떠나 공적인 자아로 지향함을 의미한다. 한편 『붉은 왕세자빈』에서의 부자관계는 할리웰의 남편 역시 그의 아버지로 인해 정신적 질환을 겪는 것으로, 그리고 『한중록』에서 의소 왕자의 죽음은 할리웰의 아들의 죽음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각자 정신질환을 지닌 영조와 사도세자, 가부장적 권위를 벗어나려는 혜경궁 홍씨, 그리고 새로운 생을 지향하는 할리웰의 의식세계를 분석해 보면, 개인의 무의식은 바로 인류의 보편적 무의식과 맥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공과 사의 문제는 쉽게 떼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왕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적 무의식과 조선이 수용한 주자학의 ‘군사부일체’<sup>65)</sup>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게 왕위를 물려받을 왕세자가 부친에 의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동서고금에 유래가 없는 비정한 사례로 남은 것이다. 드래블은 바로 이러한 보편성을 『한중록』에서 발견했다.

드래블은 『붉은 왕세자빈』을 통해 오늘날 서양에서 유행하는 소위 포스트모던한 사조를 비판하며 동서고금 인간사에 보편성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 드래블은 또한 『바쿠스(Bacchae)』에 등장하는 아가베 왕비(Queen Agave)가 아들 펜테우스(Pentheus)를 살해한 일이나, 트라키아의 리쿠르구스 왕(King Lycyrgys)이 아들 드리아스(Dryas)를 도끼로 쳐 죽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만 영조가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아들의 죽음을 명했음이 차이일 뿐이라며 비교문화적인 맥락에서 부모의 자식 살해를 고찰하고 있다. 드래블은 또한 근대사에서 러시아의 피터 대제(Peter the Great)가 아들 알렉세이(Aleksei)를 살해한 것을 언급하며, 이 경우는 아들의 죄명이 정신이상인 것이 아니라 반역이었음을 지적한다.<sup>66)</sup>

드래블은 결국 작가 혜경궁 홍씨의 입을 빌어 “공자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은 아버지를 죽여야 한다는 규범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면서 “오이디푸스 이야

65) ‘군사부일체’에 관하여는, 이상식, 「조선 숙종 대 군사부일체론(君師父一體論)의 전개와 왕권강화」, 『한국사학보』, 20호(2005), 178~192쪽 참고.

66) 드래블, 앞의 책(2005), 162쪽.

기에 교훈이란 없다”고 말한다.<sup>67)</sup> 또한 계속하여 “우리 주변은 온통 음모와 계략 투성이”였으며 “연로해 가는 왕의 불안한 통치하에서 파벌간의 싸움은 끊임 없이 없었으며 그 와중에서도 홍씨 문중은 항상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고 말한다. 드래블은 이어서 18세기 조선 영조시대 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의 파벌들을 언급하며 권력다툼을 동·서 횡단적으로 조명한다.<sup>68)</sup> 이는 드래블이 고금을 통해 서양적 가부장제와 유교적 권위주의를 동시에 비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서양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18세기 조선의 유교적 가부장제와 시공을 초월해 일치한다며 드래블은 『붉은 왕세자빈』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있다.

결국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과 드래블의 『붉은 왕세자빈』은 동일한 목소리를 지닌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텍스트이며 이들은 모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한중록』에 등장하는 충과 효 사이의 갈등은 『붉은 왕세자빈』에 와서 사회와 가정, 사회와 개인, 즉 공과 사의 문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 VI. 결론

이 연구는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과 마거릿 드래블의 『붉은 왕세자빈』을 중심으로 이 두 작품에서 논의되는 18세기 조선의 궁중 비화인 사도세자의 죽음이 어떻게 프로이트와 융의 심층심리학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도세자

67) “우리 시대의 제도였던 유교제도는 죽은 제도였다...내 남편의 파멸에 대해서 나는 공자를 탓하지는 않는다. 책임의 근원을 따지면서 아득히 거슬러 올라간다면, 공자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게다. 그러나 공자는, 아버지는 자식을 죽이고 자식은 아버지를 죽여야 한다는 규범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공자와 동시대인이었던 아에스킬루스도 그런 규범은 창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바로 뒤를 이은 소포클레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런 행위를 규정하지도 않았고 금지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우리 흥측한 인간들의 참혹한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묘사했을 뿐이다. 오이디푸스 이야기에 교훈이란 없다.” 위의 책(2004), 54쪽.

68) “일부 사학자들은 그 시대를 통틀어 ‘홍가와 김가 사이에 권력다툼이 있었다’는 단 한 문장으로 일축해놓았다. 그 한마디 안에는 어쩌면 일말의 진실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홍가와 김가, 겐지가와 하이케가, 요크가와 랭커스터가, 몬테규가와 캐플렛가—그게 세상사다.” 위의 책(2004), 175쪽.

의 비극에 대한 연구의 주요 논의는 크게 보면 첫째, 그의 정신질환에 입각한 정신분석학적 고찰과 둘째, 당시 노론, 소론간의 당파 싸움의 희생자로 바라보는 견해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기존의 『한중록』의 사도세자 논의가 크게 이 둘로 양분된 것과 관련, 『한중록』이 소설화된 『붉은 왕세자빈』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해석을 심층심리학, 즉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융의 분석심리학으로 접근해 보았다.

즉 사도세자의 개인적인 심리와 정신질환을 영조와의 관계, 즉 부자관계에 입각해 그 원인을 연구했으며, 영조의 자식살해에 대한 동인을 집단적 심리학과 집단적 무의식, 혹은 ‘희생양 원형’ 혹은 ‘희생양 제의’라는 융의 원형 이론에 비추어 규명해 보았다. 즉 기존의 정신분석학이나 단순한 당쟁의 희생물로 사도세자의 문제를 해석할 경우, 이 두 가지 상이한 결론만으로는 결코 인간사의 심오한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드래블이 혜경궁 홍씨를 해석하는 데서 나타난다.

첫째, 사도세자가 과연 국가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며 영조의 사도세자 살해 이유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가 광기를 지녔으며, 영조 스스로 아들의 살해를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영조의 정신질환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사도세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영조의 행위를 중심으로 할 경우 한 국가의 왕으로서의 영조가 군신관계를 부자관계에 선행시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게 위해 아들인 사도세자를 희생양으로 바쳤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그의 비정상적이고 패륜적인 행위 저변에는 그를 왕으로 옹립한 노론이라는 집단의 무의식이 조선의 주자학적 공/사, 충/효 갈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잠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드래블은 혜경궁 홍씨가 18세기 조선에 살면서도 이미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정통해 있었다고 설정한다. 드래블은 기존 프로이트식 결정론을 다소 벗어나며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공자의 유교’가 아닌 당시 ‘조선의 유교’라는 틀에서 발생했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또한 작품에서 동·서양 역사와 문학에 등장하는 부자살해의 사례, 그리고 동·서양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당쟁의 사례를 서술하며 모든 사실에는 보편성이 존재함을 역설하는 동시에 오늘날 유행하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에 의문을 제기한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심리적 무의식, 가부장적 권위 속에서 자신과 아들을 지켜냈던 혜경궁 홍씨, 그리고 사적인 아픔을 극복하고 공적인 자아를 개척한 할리웰을 분석해 보면, 이들 각자의 무의식과 생의 궤도는 바로 인류의 보편적 무의식과 그 궤적을 공유함을 알 수 있다. 결국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과 드래블의 『붉은 왕세자빈』은 서로 다른 시대에 동일한 목소리로 쓰인 텍스트로서 이들은 모두 심층심리학적 문제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중록』에 등장하는 충과 효 사이의 갈등이 『붉은 왕세자빈』에 와서는 사회와 개인, 즉 공과 사의 문제로 심층적으로 조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전인 『한중록』과 영국 소설인 『붉은 왕세자빈』을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 두 작품의 분석과 고찰을 통하여 인간내면 심층심리의 보편성을 추적하였다.

## 참고문헌

- 김용숙, 「사도세자의 비극과 그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한중록’ 연구」, 『국어국문학』 19호, 1958, 3~52쪽.
- 김용숙, 『한중록 연구』. 서울: 정음사, 1987.
- 김형효, 「古代神話에 나타난 韓國人의 哲學的 思惟」, 『한국철학회』. 서울: 동명사, 1989, 1~55쪽.
- 융, C.G., 『융 기본 저작집(2): 원형과 무의식』. 서울: 솔출판사, 2002.
- 김동욱·이병기, 『한국고전문학대계(14): 한중록』. 서울: 민중서관, 1973.
- 마거릿 드래블(저)/ 전경자(옮김), 『붉은 왕세자빈』. 서울: 문학사상, 2005.
- 박현모, 『정치가 정조』. 서울: 푸른 역사, 2001.
- 서경희, 『『한중록』의 英譯本 *The Memoirs of Lady Hyegyöng* 연구』, 『온지논총』 7권 1호, 2001, 137~160쪽.
- 이규동, 「『衣帶病』에 대한 精神分析學的 考察: 閑中錄에 浮刻된 思悼世子의 病歷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71.
- 이금희, 『한중록』. 서울: 국학자료원, 2001.
- 이덕일,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서울: 석필, 2001.
- 이상식, 「조선 숙종대 군사부일체론(君師父一體論)의 전개와 왕권강화」, 『한국사학보』 20호, 2005, 165~192쪽.
- 이은순, 「현릉원지(顯陵園誌) 행장(行狀)과 한중록의 비교연구: 사도세자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국

학보』 7권 1호, 1981, 40~58쪽.

정은임(교주). 『한중록』. 서울: 이회문화사, 2002.

최문형, 「유교와 기독교의 공적윤리」. 『한국전통사상의 탐구와 전망』. 서울: 경인문화사, 2004, 359~380쪽.

최용기, 「『한중록』에 나타난 갈등구조」. 『건국어문학』 15권 1호, 1991, 219~243쪽.

Bokat, Nicole Suzanne, *The Novels of Margaret Drabble: this Freudian family nexus*. NY, Washington: Peter Lang, 1998.

Drabble, Margaret. *The Red Queen: A Transcultural Tragicomedy*. Florida: Harcourt, 2004.

Guerin, Wilfred L., Earle Labor, Lee Morgan, Jeanne C. Reesman, John R. Willingham.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4th ed. NY, Oxford: Oxford UP, 1999.

Haboush, JaHyun Kim, *The Memoirs of Lady Hyegyŏng: The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a Crown Princess of Eighteenth-Century Korea*.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Haboush, JaHyun Kim, "Private Memory and Public History: The Memoirs of Lady Hyegyŏng and Testimonial Literature." Young-Key Kim-Renaud(ed.), *Creative Women of Korea: The Fifteenth Through the Twentieth Centuries*. NY: M.E. Sharpe, 2004, pp. 122~141.

Lee, Young-Oak, "An Interview with Margaret Drabble." *Contemporary Literature XLVIII*, 4. Madison: Board of Regent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2007, pp. 477~498.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한중록』과 『붉은 왕세자빈』을 텍스트로 하여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과 융의 분석심리학의 틀을 이용하여 사도세자의 죽음을 심층심리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사도세자의 무의식과 정신질환을 영조와의 관계에 입각하여 분석했으며, 영조의 자식살해 동인을 집단심리학과 집단 무의식, ‘희생양 원형’ 또는 ‘희생양 제의’ 라는 융의 원형 이론에 비추어 규명하였다. 사도세자의 죽음에는 충과 효, 공과 사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이는 사도세자뿐만 아니라 영조, 노론 대신들, 혜경궁 홍씨, 정조 등 당시 인물들의 상황에도 적절하였다. 이 분석의 틀은 『붉은 왕세자빈』의 할리웰과 그녀의

남성들,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도 상징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18세기에 쓰인 『한중록』과 21세기의 영국 소설 『붉은 왕세자빈』이 공통적으로 심층심리학적 비평 분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인간의 개인적 심리와 사회적 심리현상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 투고일 : 2008. 1. 9.

● 심사완료일 : 2008. 2. 28.

● 주제어(keyword) : 『한중록(Hanjung-nok)』, 사도세자(Prince Sado), 영조(King Yǒngjo), 혜경궁 홍씨(Crown Princess Hong), 마거릿 드래블(Margaret Drabble), 『붉은 왕세자빈(The Red Queen)』, 임오화변(Imo Incident), 집단적 무의식(the collective unconscious), 원형(archetype), 희생양(scapegoat), 공(the public), 사(the private), 충(loyalty), 효(filial piety), 문화횡단성(transculturality).